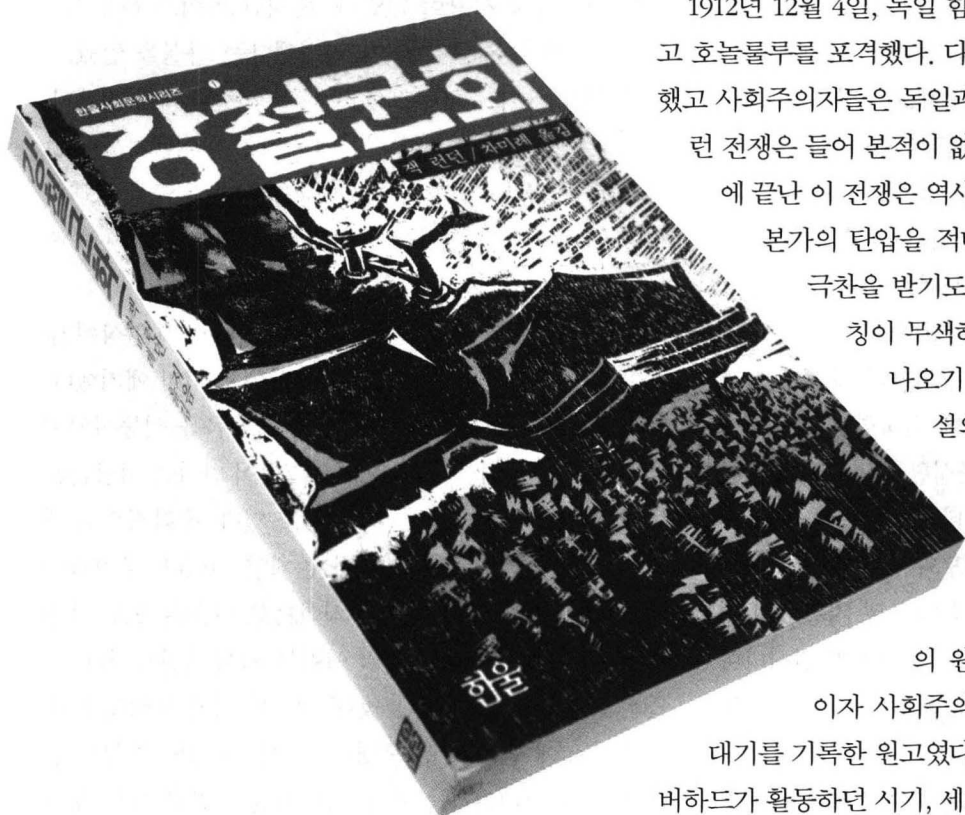


책 런던의 《강철군화》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글_ 표정훈



1912년 12월 4일, 독일 함대가 네 척의 미 군함을 침몰시키고 호놀룰루를 포격했다. 다음 날 독일과 미국은 전쟁을 선포했고 사회주의자들은 독일과 미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런 전쟁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아마 그럴 것이다. 한 주 만에 끝난 이 전쟁은 역사가 아닌 소설,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의 탄압을 적나라하게 그려 레닌과 트로츠키의 극찬을 받기도 한 작품, '소설 자본론'이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은 잭 런던의 《강철군화》에 나오기 때문이다. 1908년에 발표된 이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상의 미래인 27세기 통일 사회주의 세계의 문헌학자 앤서니 메레디스는 에비스 에버하드의 원고를 발견한다. 에버하드가 남편이자 사회주의 혁명가 어니스트 에버하드의 일대기를 기록한 원고였다. 그 일대기에 따르면 어니스트 에버하드가 활동하던 시기, 세계는 극심한 불경기와 경제 공황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극심해져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사회 기간시설이 마비된다. 지배계급은 주요 노동조합을 매수한 뒤 나머지 노동조합도 각개 격파해 나가려 한다. 에버하드는 지배계급의 책략을 짐작하고 노동자 계급의 결속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배계급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당한다.

상류층 인사들의 사교 모임인 필로머스 클럽이 사회주의 혁명가 에버하드를 초청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조롱하고 망신을 주려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클럽 측의 의도와 달리 에버하드는 미국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신념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한다. 이에 워슨이라는 사람이 에버하드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자네가 장담하는 대로 그 힘센 두 손을 내밀어 우리 저택과 화려한 안락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잭 런던 지음 | 차미레 옮김 | 한울 | 414쪽 | 값 8,000원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가'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책은 나만의 운명을 지낸다》 《탐서주의자의 책》 《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 《고대문명의 환경사》 《진영첩의 주자강의》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폭탄의 굉음과 파편과 기관총 소리에 들어 있다. 우리는 자네와 같은 혁명가들을 우리의 구두 뒤축(iron heel)으로 짓밟을 것이고, 혁명가들의 얼굴을 짓몽개버릴 것이다.”

잭 런던(1876~1916)이 누구인가? 본명이 존 그리핀 체니인 잭 런던은 떠돌이 점성술사의 사생아로 태어나 의붓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 신문배달, 통조림공장 직공, 바다 표범잡이배 선원 등 갖가지 육체노동과 방랑으로 소년시절을 보냈고, 19세 때 고등학교에 입학, 다음해 캘리포니아 대학에 들어가 반 년 남짓 다니면서 허버트 스펜서, 찰스 다윈, 칼 마르크스, 니체 등의 저서를 탐독했다. 작가로는 키플링과 스티븐슨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0년 최초의 단편집 《이리의 아들》로 문단의 주목을 끌었고, 1903년에 대표작 《야성이 부르는 소리》를, 이듬해에는 바다표범잡이배 선장을 그린 《바다의 이리》를, 1906년에 《흰 엄니》, 1908년에 《강철군화》, 1909년에 《마틴 이든》, 1913년에 《달의 계곡》을 차례로 내놓았다. 그밖에 《시합》(1908) 《아담 이전》(1906) 《존 발리콘》(1913) 단편집 《생명에》, 평론집 《계급 투쟁》(1905) 등을 내놓았고, 40세 때 캘리포니아 산타로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잭 런던은 1904년에 허스트 신문 신디케이트 종군 기자 자격으로 조선에 와서 YMCA 초청으로 《야성이 부르는 소리》 낭독회를 갖기도 했다. 일본군을 따라 러일전쟁을 취재하면서 조선에 대한 많은 글을 기고했다.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한울 1995)는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드문 자료이며, 주변 강대국 러시아, 일본, 중국에 휘둘리고 허약했던 조선의 모습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사료로서도 중요하다.

잭 런던은 조선으로 건너가기 위해 필요한 공식 인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조선으로 출발하기 위해 균형인 모지로 갔다. 그곳에서 카메라를 빼앗기고 억류당했지만 동료 기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도움으로 카메라를 돌려받고 풀려나 배편으로 조선에 갈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익서미너〉지에 1904년 2월 3일자로 잭 런던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목의 헤드라인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잭 런던이 어떻게 일본에서 투옥됐다가 풀려났는가.’ 《야성이 부르는 소리》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잭 런던이었기에, 그가 보내오는 전쟁 관련 기사보다도 그 자신에 관한 기사가 더 중시되었던 것.

한편 ‘소설로 배우는 정치경제학’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던 《강철군화》가 여러 나라에서 금서가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50년대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닥친 미국에서 불온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정권 치하의 이탈리아에서도 금서가 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고무 찬양하는 내용이니 나치 독일과 미국 등에서 불온서적으로 낙인찍힌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구소련, 중국, 북한, 그 밖의 구공산권 국가에서도 《강철군화》는 금서가 됐다. 《강철군화》가 겪어야 했던 이 기이한 운명의 까닭은 무엇일까?

《강철군화》는 비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그에 따른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내용이지만, 넓은 맥락에서 보면 전체주의 체제의 폭압성과 모순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 작품을 찬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를테면 트로츠키는 이 작품과 잭 런던을 이렇게 평가했다. “단 한 명의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도 자본과 노동 귀족 사이의 불길한 야합의 가능성을 그처럼 완벽하게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스탈린 일인독재체제가 공고해 진 이후의 소련에서는 소련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의 작품으로 지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잭 런던이 이 작품에서 지배계급이 잉여 이윤으로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매수하고, 나머지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구실을 하는 노동 귀족이 출현한다는 것을 예견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분화를 예견한 잭 런던의 혜안은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꿰뚫어 볼 줄 안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

필자의 개인적 독서 체험을 돌이켜 보면 ‘소년소녀 세계명작’ 류의 전집에서 잭 런던의 작품을 접하다가 대학에 입학해 《강철군화》를 접하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낭만 소설과 사회주의자로서 이념을 위해 쓴 사회주의 소설로 날카롭게 양분되는 작품 세계를 가진 작가’라는 잭 런던에 대한 평가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었다. 《강철군화》 한국어판 초판은 1989년 7월에 나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1987년 6월 항쟁과 그에 이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번역판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이전이라면 번역판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나왔다 해도 ‘좌경용공 불온서적’으로 낙인 찍혀 압수당하는 운명을 겪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